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3. 2. 22.(수) 11:00 < 2.23.(목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2. 22.(수)
담당 부서	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호성 (044-203-5240)
		담당자	서기관 박은표 (044-203-5121)

에너지공기업, 강도 높은 자구노력 및 조직혁신과 선도적인 에너지 효율절약 지원에 각고의 노력 추진

-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 개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2.22(수) 16시, 한국전력·한국수력원자력·발전5사·가스공사·석유공사 등 **에너지공기업 14개사(社)**가 참석한 가운데 **「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」**를 개최하였다.

《 회의 개요 》

▶ 일시/장소 : '23. 2. 22.(수) 16:00 / 석탄회관(서울 광화문 소재)

▶ 참 석 자 :
- (산업부) 박일준 차관, 에너지정책관, 전력정책관, 자원산업정책국장, 원전전략기획관
- (공기업) 한전, 발전5사, 한전KDN, 한수원, 한국지역난방공사, 가스공사, 석유공사, 광해광업공단, 석탄공사, 에너지공단 사장

○ 이번 회의는 **에너지 공기업의 재정건전화계획 및 혁신계획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**하는 한편, 에너지 공기업이 추진 중인 **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점검**하고, **국민의 에너지 효율·절약 지원에 선도적 역할 등을 당부**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□ 지난 '22.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전, 가스공사 등 **12개 에너지 공기업*의 '22년도 재정건전화 이행실적**을 점검한 결과, **12개사(社)는 당초 목표했던 5.3조원의 약 121%에 달하는 6.4조의 실적을 달성**하였으며,

* 한전, 발전5사, 한수원, 한난, 가스공사, 석유공사, 광해광업공단, 석탄공사

○ 회의에 참석한 **14개 에너지 공기업의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** 결과, 지난 '22.7월 발표된 **「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」**을 **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**하였다.

□ **에너지 공기업**들은 그간 정원감축, 비핵심·불용자산 매각 등으로 조직·인력 및 자산을 효율화하는 한편,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,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등 자체적인 예산통제를 강화하는 등 **높은 강도의 자구노력을 이행해왔음**을 보고하였다.

* (자산 효율화) 사택, 유휴부지 및 연수원 매각, 출자사업 축소 등
(복리후생 합리화) 사내 대출제도 조정, 장학금 및 경조사비 지급기준 조정 등

○ 또한, **'23년도에도** 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낭비요인 최소화, 사업조정,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통해 **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**하고, **경영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**해나가겠다고 밝혔다.

○ 이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기기 보급, 뿌리기업 효율 개선사업 지원, 에너지캐쉬백, 난방 취약현장 컨설팅, AMI 보급, 요금할인·바우처 등 **효율 개선사업 지원 현황**을 보고하고, **겨울철 한파뿐 아니라 여름철 폭염을 선제 대비하여 사업을 지속 내실화할 계획**임을 밝혔다.

《 주요 에너지공기업의 효율·절약 지원사업 》

▶**(한전)** (現) 취약계층, 복지시설, 영세기업 고효율기기 보급, 에너지캐쉬백 등 지원 중
→ (계획) 에너지캐쉬백 가입절차 간소화, 중소기업 효율화사업 지원 등 확대

▶**(발전5사)** (現) 지자체·대학 에너지개선, 발전소 주변지역·복지시설 복지사업 등 진행 중
→ (계획) 기존 사업 내실화 추진

▶**(한난)** (現) 고객설비 효율 개선 지원(진단·컨설팅, 경보수) 등 지원 중
→ (계획) 난방비 종합대책단 구성 통해 난방 취약현장 컨설팅 등 추진

▶**(가스공사)** (現) 취약계층·복지시설 열효율 개선, 노후가스보일러 교체, AMI 보급 등 지원 중
→ (계획) 기존 지원사업 확대 추진

▶**(에너지공단)** (現) 중소·중견기업 대상 무상 에너지진단, 노후 주거시설 데이터기반 수요관리, 난방 취약현장 방문점검·컨설팅 등 지원 중 → (계획) 지속 내실화

□ 이 자리에서 **박일준 2차관**은 “에너지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, **국민에 대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재무건전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**” 하다고 강조하고,

○ “각 기관별로 **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계획대로 철저히 이행**하기 위해, **불요불급한 부분은 신속히 효율화**하고, **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지혜택을 합리화**하는 등 내부노력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” 고 언급하는 한편, “남은 동계기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**수급 관리를 철저히** 해줄 것” 을 당부하였다.

○ 아울러 “국제 에너지 가격급등이라는 불가피한 인상요인을 요금에 일부 반영하는 과정에서 **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난방요금 할인 등 최선의 정책적 노력**을 기울이고 있으나, **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과 전 국민의 절약 문화 정착이 중요**하다” 고 언급하였다.

- 이와 관련하여, “에너지 공기업 효율향상의무(EERS) 제도를 통한 마트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*이 효율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둔 사례처럼 **각 기관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·지원해주길 바란다**” 고 당부하였다.

  * 롯데마트 시범사업으로 ’22.12월 전력사용량 50% 절감 효과

○ 마지막으로 “**다가오는 봄철 산불 발생에 대비**하여, 각 기관에서는 **대형 산불 대책기간(3.31~4.30) 동안 상시 비상근무 태세**를 빈틈없이 유지하고, **예방·신속대응·신속복구의 종합 대응체계 운영에 적극 협조**해주길 바란다” 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